

유아의 의도적 통제, 부부갈등, 부모역할지능과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임 미 지¹⁾

문 혁 준²⁾

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 위치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유아 299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유아의 의도적 통제, 부부갈등, 부모역할지능이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수집된 자료로 t-test와 ANOVA, 사후검증(Scheffé),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취업모의 유아가 취업모의 유아보다 외현화 문제행동이 높았으며, 학력수준이 높은 어머니의 유아가 낮은 어머니의 유아보다, 월 소득 수준이 높은 가정의 유아가 낮은 가정의 유아보다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이 높았다. 둘째, 부부갈등, 부모역할지능은 내재화 문제행동과, 유아의 의도적 통제, 부부갈등, 부모역할지능은 외현화 문제행동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셋째, 남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은 부모역할지능, 여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은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부모역할지능이, 남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부부갈등과 부모역할지능, 여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어머니의 교육수준,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부모역할지능이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부모역할과 부모로서의 올바른 모습이 모델링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요어 : 유아의 의도적 통제, 부부갈등, 부모역할지능,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 본 논문은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1) 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석사

2) 교신저자 : 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교수 (E-mail : mhyukj@catholic.ac.kr)

I. 서론

유아기는 인간 발달에 있어 기본 토대가 되는 결정적인 시기로서, 이 시기에 문제행동 없이 기본적인 사회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청소년기에 이르러 자아를 확립하고 독립성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Berk, 2012).

유아의 문제행동은 단순히 유전적인 요인이나 환경의 영향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유아 자신의 개인적인 특성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의 불일치, 즉 부적합성의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 이유는 개별 유아에 대한 부모의 기대감이 제각기 다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 또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원영미, 1989). 유아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변수로 가장 많이 고려되는 것 중 하나가 유아의 성별이다. 남아와 여아의 성차를 보고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남아가 여아에 비해 문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남아와 여아의 성별에 따른 문제행동 발생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존재한다(강덕귀, 2002; 이순형, 이옥경, 민미희, 2006; 하영희, 2003). 또한 성별 차이에 대한 문제행동은 주로 공격성의 형태 차원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많으며, 그 성차의 원인으로 생물학적 차이와 사회학습으로 인한 차이,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의 차이, 부모의 양육방식과 부모들이 습득하는 지식들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문제행동의 이론적 정립을 위하여 성별과 문제행동의 관계를 밝히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유아의 환경적 특성과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김문정(2003)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력과 월 가계수입은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김현정(2001)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훈육스타일에 따라 저소득 가정에서 생활하는 남아들의 경우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행동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의 자녀가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그러나 어머니의 연령, 취업유무와 가정의 월 소득에 따라 유아의 문제행동에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밖에 거주 지역에 따라 경제적 환경수준이 낮은 지역에 사는 유아가 경제적 환경수준이 높은 지역의 유아보다 외현적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났다(김경중, 이찬숙, 조은주, 2008; 이찬숙, 김경윤, 2008).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유아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열악한 환경의 부정적 영향이 문제행동의 발생 양상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유아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 모두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유아는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사회·정서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강조되는 것이 의도적 통제 능력이다. 정서와 행동을 조절하는 개인의 역량을 반영하는 의도적 통제는 3-8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Ahadi, Rothbart, & Ye, 1993)에서 기질과 관련된 주의력의 한 요소로서 처음 확인한 개념이다. 의도적 통제가 기질의 한 차원으로 정의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 통제의 개념을 정의한 몇몇 연구자들(Eisenberg & Spinard, 2004; Simonds, Kieras, Rueda, & Rothbart, 2007)

은 자기 조절과도 관련된 의도적 통제는 ‘하위 반응을 수행하기 위해 우세한 반응을 억제하는 능력’(Rothbart & Bates, 1998) 또는 ‘우세한 반응을 억제하는 능력과 하위 반응을 활성화하고, 계획하고, 실수를 발견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실행 주의력의 효율성’으로 정서 조절과 밀접하게 관련된 요소로 정의하였다(Rothbart & Bates, 2006). 의도적 통제는 하위 반응을 실행하기 위해, 혹은 실수를 탐지하기 위해 우세한 반응을 억제하거나 우세하지 않은 반응을 활성화 시켜야 하며(Rothbart & Bates, 2006), 정서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주의를 의도적으로 전환하여 정서의 내적 경험을 조절하거나 충동이 일어날 때 행동을 억제하고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동을 활성화하여 정서의 행동적 표현을 조절해 사용된다(문영경, 2010). 따라서 의도적 통제 능력이 불안,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스스로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며, 또래관계에서 갈등 상황이 일어날 때도 의도적 통제를 잘하는 아동들은 주의를 전환하거나 부적절한 반응 및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으므로 공격적인 행동을 덜하게 된다(Calkins & Fox, 2002). 또한 Caspi, Henry, McGee, Moffitt과 Silva(1995)는 유아기의 통제 결여 기질이 이후 아동기에 이르러 내재화 문제행동보다 외현화 문제행동과 강한 관련을 갖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의도적 통제는 약 1, 2세경에 출현하여 생애 첫 4년에 걸쳐 급속도로 발달하다가 4세경에 이르면 지능과 같은 안정성을 보이게 되고, 이후 개인의 성격적 특성으로 유지된다고 하였으며(Kochanska &

Knnack, 2003), 의도적 통제 수준이 낮을수록 유아는 공격적 행동이나 과잉행동을 보이거나(한영숙, 2010), 의도적 통제가 매우 낮은 유아와 매우 높은 유아 모두에게서 내재화 문제행동이 나타난다고 하였다(Murray & Kochanska, 2002).

의도적 통제의 발달은 예기치 않은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바람직한 대처를 위해 좀 더 효율적으로 전략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주의력을 조절할 수 있고 감정과 충동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는 훈련은 유아기부터 습관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유아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의도적 통제는 유아의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유아의 문제행동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부부 간 갈등은 가족 내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나, 부부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은 단순히 부부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지니, 2011). 이때, 다른 가족원 중 가장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은 그들보다 약한 그들의 자녀(조영란, 1993), 즉 유아이다. 부부갈등에 대한 연구는 이혼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부터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혼여부가 아니라 부부갈등으로 나타났다(Block, Block, & Gjerde, 1986). 또한 많은 연구들에서 결혼만족과 부부관계는 서로 연관되는 경향이 있으나 부부갈등이 결혼 불만족도나 결혼생활의 질보다 유아의 문제행동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변영인, 1995; 이민식, 1999;

Grych & Fincham, 1990).

최근 불안정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가족, 특히 부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킴으로써 많은 가족문제가 발생될 우려를 낳고 있으므로 부부갈등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유아의 행동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유아기와 초기 아동기는 자녀의 양육시기에서 부모 간의 갈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Belsky & Rovine, 1990) 부부갈등은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한 예로, 부부갈등이 빈번한 가정의 자녀가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보일 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가정의 자녀에 비해 2~5배 가량 높다는 연구결과(Richman, Steavenson, & Graham, 1982)는 갈등상황이 유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갈등의 영향으로 인한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밝히는 것은 유아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자녀가 사회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가정의 영향력 안에서 비교적 긴 시간을 보내게 되는 우리나라 가정의 형태를 고려해 볼 때, 자녀의 발달에 있어 부모역할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부모됨에 대한 준비나 훈련 없이 부모가 되고, 부모역할은 점진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며 부모의 역할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 부모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과거에는 대가족이 함께 모여 살면서 어린 동생을 돌보거나 조카의 성장과정을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부모역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현대의 부모들은 그러한 기회를 갖지 못하여

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정옥분, 임정하, 정순화, 김경은, 박연정, 2008).

아울러 자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므로 어머니를 통해 바깥 세상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화의 기초를 형성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어머니는 자녀에게 최초의 교사이자 영원한 교사로 유아 일생의 초기에 겪을 경험들을 양적 또는 질적으로 계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배영자, 2009). 부모역할이란 자녀 양육과 관련되어 있는 ‘부모로서 기대되는 행동’인데, 이 행동은 부모로서 갖게 되는 지식, 태도, 기술 등으로 인해 표출되며 부모역할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현미숙, 2004). 한편, 부모역할지능은 부모양육태도와 구분되는 것인데 양육 상황과 맥락에서 적합한 역할을 선택하는 지적능력이 되는 부모역할지능과 구체적 양육행동을 이끄는 선행적 요소로서의 양육태도는 차이점을 지닌다. 부모역할은 양육자의 신념에 따라 양육행동이 정해질 수 있지만,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에서 모두 일관된 행동으로 반응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부모들은 새로운 상황에서 자신이 가진 자원으로 혹은 새로운 자원을 끌어들이어 적응적인 부모역할 반응을 선택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인간이 적응하고 학습하기 위해 지능이 필요한 것처럼, 부모역할에서도 맥락에 따라 적절한 역할들을 선택하고 그에 적합한 역할특성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적능력이 필요한 것이다(김응자, 2004). 현미숙(2004)은 부모가 자녀를 격려하지 못하고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며 적절한 통제로 관리하지 못할 때 유아는

위축, 주의집중, 사회적 미성숙, 불안과 우울 등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들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최근 연구들은 타고난 특성들이 영유아기 동안 나타나는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아 나타난 특성으로 해석하고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배윤진, 임지영, 2012). 유아의 기질적 측면은 환경과 상호작용에 의해 유아 발달에 영향을 주며, 기질적 요인과 주위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각 개인에게서 나타나는 개인차를 설명해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부부갈등, 부모역할지능과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상관관계와 영향력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 변인들의 상대적 설명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 문제행동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 유아를 둘러싼 개인 내적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부모들의 인식의 변화를 도모하여 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돕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회인구학적 변인(어머니 취업 여부, 어머니 교육수준, 월 소득수준)에 따라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의도적 통제, 부부갈등, 부모역할지능과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사회인구학적 변인, 유아의 의도적 통제, 부부갈등, 부모역할지능이 남아와

여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 위치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8곳의 만 5세반에 재원중인 유아,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 총 299명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유아의 성별은 남아 153명(51.2%), 여아 146명(48.8%)으로 총 299명이었다. 이들의 어머니는 비취업모 136명(45.5%), 취업모 163명(54.5%)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 85명(28.4%), 전문대졸 75명(25.1%), 4년제 대졸 이상 139명(46.5%)으로 나타났고, 가정의 월 소득 수준은 400만원 미만 141명(47.2%), 400만원 이상 158명(52.8%)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1.5-5세 연령을 대상으로 부모가 평정하도록 제작된 유아용 CBCL을 오경자와 김영아(2008)가 한국판으로 번역하여 표준화한 K-CBCL을 사용하였다. K-CBCL은 총 10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수면문제와 기타문제를 제외한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36문항과 외현화 문제행동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유아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표 1. 유아의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의 문항수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Cronbach's α
내재화 문제행동	36	.90
외현화 문제행동	24	.90

위해 제시한 내재화 문제행동의 문항에는 “감정이나 기분이 갑자기 변하곤 한다.”, 외현화 문제행동의 문항에는 “남을 신체적으로 공격한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0점)’부터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2점)’까지 Likert식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내재화 문제행동은 최저 0점에서 최고 72점, 외현화 문제행동은 최저 0점과 최고 48점 사이에 놓이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내재화 문제행동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90이었다.

유아의 의도적 통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의도적 통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만 3~7세 아동을 대상으로 교사가 평정하도록 실시된 기질 평가지인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Teacher Form (Short Form) (Teglasi, Schussler, & Gustafson, 2010)을 번안하여 사용한 배운진(2012)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주의집중, 억제조절, 강도 낮은 자극선호, 지각민감성, 미소와 웃음의 5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 주제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미소와 웃음 요인을 제외하였으며, 신뢰도를 낮추는 2문항을 제외한 총 24문항을 사용하였

표 2. 의도적 통제 하위요인별 문항수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Cronbach's α
주의 집중	5	.73
억제 조절	6	.83
강도 낮은 자극 선호	8	.70
지각 민감성	5	.75
전체	24	.81

다. 유아의 의도적 통제를 측정하기 위해 제시한 문항에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장소에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간다.”와 같은 문항에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5점)’로 최저 24점에서 최고 120점 사이에 놓이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도적 통제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70 ~ .83이었다.

부부갈등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여인동(2001)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원 척도는 개인적 차원, 부부 관계적 차원, 제삼자 관계적 차원, 경제적 요인, 성생활 요인의 5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 주제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성생활 요인을 제외한 총 29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부부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제시한 문항에는 “자녀의 교육, 양육방법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로 다툼 적이 있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Likert식 4점 척도이며, 최저 29점에서 최고 116점 사이에 놓이게 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의 정도가

표 3. 부부갈등의 하위요인별 문항수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Cronbach's α
개인적 차원	8	.84
부부 관계적 차원	11	.93
제삼자 관계적 차원	8	.76
경제적 요인	2	.75
전체	29	.95

심각한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75 ~ .95였다.

부모역할지능

본 연구에서는 부모역할지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현미숙(2004)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발달자극역할, 양육 및 지지역할, 관리역할의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역할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제시한 문항에는 “아이가 무리한 요구를 할 때는 ‘안된다’고 분명하게 말한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총 44문항이다. 최저 44점에서 최고 220점 사이에 놓이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역할지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1 ~ .93이었다.

표 4. 부모역할지능 하위요인별 문항수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Cronbach's α
발달자극역할	24	.89
양육 및 지지역할	12	.81
관리역할	8	.82
전체	44	.93

3. 연구절차

본 조사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8곳의 만 5세반 교사와 재원중인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총 402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323부(80.4%)를 회수하였으며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와 부모용 및 교사용 질문지 중 한쪽 평정자의 질문지가 회수되지 않아 비교·분석이 불가능한 자료 24부를 제외한 총 299부가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각 측정도구의 문항 간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했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유아의 의도적 통제, 부부갈등, 부모역할지능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 -test와 ANOVA, 사후검증(Scheffé)을 실시하였다.

셋째, 측정변수들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사회인구학적 배경, 유아의 의도적 통제, 부부갈등, 부모역할지능이 유아의 성별에 따른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상

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측정변인의 기술통계치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 통계치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의도적 통제의 평균은 3.73($SD = .46$)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부부갈등은 1.91($SD = .50$)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역할지능은 3.93($SD = .41$)으로 중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은 .26($SD = .22$)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33($SD = .28$)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어머니 취업여부, 어머니 교육수준, 월 소득수준)에 따른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차이

어머니의 취업여부, 어머니 교육수준, 가정

의 월 소득 수준에 따른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차이는 표 6과 같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유의미한 차이($t = -2.35, p < .05$)를 보였으며, 비취업 어머니($M = .38, SD = .30$)의 유아보다 취업 어머니($M = .30, SD = .26$)의 유아보다 외현화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F = 3.78, p < .05$) 및 외현화 문제행동($F = 3.13, p < .05$)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하위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분석으로 Scheffé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및 외현화 문제행동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정의 월 소득 수준에 따라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t = 2.92, p < .01$) 및 외현화 문제행동($t = 3.15, p < .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은 가정의 월 소득 수준이 400만원 이상 가정($M = .22, SD = .18$)의 유아보다 400만원 미만 가정($M = .30, SD = .26$)의 유아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도 가정의 월 소득 수준이 400만원 이상 가정($M = .29, SD = .24$)의 유

표 5. 측정 변인의 기술 통계치

($N = 299$)

변 인	통계치	응답 가능한 점수범위	최소 - 최대값	$M(SD)$
의도적 통제		1 - 5	2.29 - 4.91	3.73(.46)
부부갈등		1 - 4	1.00 - 3.66	1.91(.50)
부모역할지능		1 - 5	2.50 - 4.91	3.93(.41)
내재화 문제행동		0 - 2	.00 - 1.33	.26(.22)
외현화 문제행동		0 - 2	.00 - 1.38	.33(.28)

표 6. 사회인구학적 변인(어머니 취업여부, 어머니 교육수준, 월 소득수준)에 따른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차이

(N = 299)

구분(n)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M(SD)	t / F	M(SD)	t / F
어머니 취업여부	비취업(n = 136)	.29(.22)	.38(.30)	
	취업(n = 163)	.24(.22)	.30(.26)	-1.83
어머니 교육수준	고졸(n = 85)	.28(.21)	.39(.27)	
	전문대졸(n = 75)	.30(.21)	.34(.24)	3.78*
	4년제 대졸 이상(n = 139)	.22(.22)	.29(.30)	3.13*
월 소득 수준	400만원 미만(n = 141)	.30(.26)	.39(.31)	
	400만원 이상(n = 158)	.22(.18)	.29(.24)	2.92*

* $p < .05$. ** $p < .01$. *** $p < .001$.

아가 400만원 미만 가정($M = .39$, $SD = .31$)의 유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유아의 의도적 통제, 부부갈등, 부모역할지능과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

유아의 의도적 통제, 부부갈등, 부모역할지능과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은 부부갈등($r = .31$, $p < .001$), 부모역할지능($r = -.35$, $p < .001$)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즉, 부부갈등이 높고 부모역할지능이 낮을수록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유아의 의도적 통제($r = -.19$, $p < .01$), 부부갈등($r = .32$, $p < .001$), 부모역할지능($r = -.37$, $p < .001$)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즉, 유

표 7. 유아의 의도적 통제, 부부갈등, 부모역할지능과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

변인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1. 의도적 통제	-.09	-.19**
2. 부부갈등	.31***	.32***
3. 부모역할지능	-.35***	-.37***

** $p < .01$. *** $p < .001$.

아의 의도적 통제와 부모역할지능이 낮고,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사회인구학적 변인(어머니 취업여부, 어머니 교육수준, 월 소득수준), 유아의 의도적 통제, 부부갈등, 부모역할지능이 남아와 여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인구학적 변인, 유아의 의도적 통제, 부부갈등, 부모역할지능이 유아의 성별에 따라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기본 가정의 만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VIF지수는 1.02~2.14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유아의 의도적 통제, 부부갈등, 부모역할지능이 남아와 여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인구학적 변인, 유아의 의도적 통제, 부부갈등, 부모역할지능이 남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I, II단계에서 가정의 월 소득($\beta = -.24, p < .01$)은 남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모델 I, II의 설명력은 7%였다. III단계에서 추가로 투입된 부부갈등($\beta = .29, p < .01$)은 남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모델 III의 설명력은 14%였다. IV단계에서 추가로 투입된 부모역할지능($\beta = -.32, p < .001$)은 남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모델 IV의 설명력은 22%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유아의 의도적 통제, 부부갈등, 부모역할지능이 여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I 단계에서 어머니의 교육수준($\beta = -.34, p < .01$)은 여아의 내재화 문제행동과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9%였다. II단계에서 추가로 투입된 유아의 의도적 통제는 여아의 내재화 문제행동과 유의미하지 않게 나

타났으며, 모델 II의 설명력은 10%로 나타났다. III단계에서 추가로 투입된 부부갈등($\beta = .24, p < .01$)은 어머니의 교육수준($\beta = -.30, p < .01$)과 함께 여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모델 III의 설명력은 15%였다. IV단계에서 추가로 투입된 부모역할지능($\beta = -.22, p < .05$)은 어머니의 교육수준($\beta = -.28, p < .05$)과 함께 여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모델 IV의 설명력은 19%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남아는 부모역할지능이 낮을수록 내재화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나고, 여아는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부모역할지능이 낮을수록 내재화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유아의 의도적 통제, 부부갈등, 부모역할지능이 남아와 여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인구학적 변인, 유아의 의도적 통제, 부부갈등, 부모역할지능이 남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I, II단계에서 가정의 월 소득($\beta = -.20, p < .05$)은 남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모델 I, II의 설명력은 7%였다. III단계에서 추가로 투입된 부부갈등($\beta = .31, p < .001$)은 남아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모델 III의 설명력은 15%였다. IV단계에서 추가로 투입된 부모역할지능($\beta = -.36, p < .001$)은 부부갈등($\beta = .17, p < .05$)과 함께 남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모델 IV의 설명력은

표 8. 사회인구학적 변인, 유아의 의도적 통제, 부부갈등, 부모역할지능이 남아와 여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N = 299)

독립변인	종속변인											
	남 아						여 아					
	I		II		III		IV		I		II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사회	.04	.07	.04	.07	.04	.08	.05	.10	.05	.12	.04	.11
인구학적	.03	.10	.03	.10	.02	.07	.02	.01	-.06	.34**	-.08	.33**
변인	.12	.24**	.12	.24**	.07	.14	.06	.12	.04	.09	.04	.06
유아의 의도적 통제			-.02	-.04	-.03	-.05	-.01	-.02			-.03	-.07
부부갈등					.13	.29**	.08	.17			.10	.24**
부모역할지능							-.20	-.32***				-.10
F	3.50*		2.62*		4.57**		6.54***		4.67**		3.74**	
R ² (Adj-R ²)	.07(.05)		.07(.04)		.14(.11)		.23(.18)		.09(.07)		.10(.07)	
ΔR ²			.00		.07		.08		.01		.05	

주: 어머니 취업여부는 취업이 0, 비취업이 1로 코딩되었음.

* $p < .05$. ** $p < .01$. *** $p < .001$.

표 9. 사회인구학적 변인, 유아의 의도적 통제, 부모갈등, 부모역할지능이 남아와 여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N = 299)

독립변인	종속변인	유아 외현화 문제행동											
		남 아						여 아					
		I		II		III		IV		I		II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사회	어머니 취업여부 ^{a)}	.07	.11	.07	.11	.07	.12	.08	.14	.07	.14	.05	.09
												.06	.11
												.05	.05
인구학적	어머니 교육수준	.04	.11	.04	.11	.03	.08	.01	.01	-.10	-.33 ^{***}	-.10	-.31 ^{***}
												-.09	-.28 ^{***}
												-.08	-.27 [*]
변인	월 소득	-.12	-.20 [*]	-.12	-.20 [*]	-.06	-.10	-.04	-.07	.00	.00	.01	.03
												.05	.03
												.06	.06
유아의 의도적 통제				-.01	-.02	-.02	-.03	.01	.00			-.14	-.23 ^{***}
												-.12	-.21 ^{***}
부부갈등						.17	.31 ^{***}	.10	.17 [*]			.12	.22 ^{***}
												.08	.14
부모역할지능								-.27	-.36 ^{***}				-.12
													-.21 [*]
F		3.14 [*]		2.34		5.01 ^{***}		8.31 ^{***}		5.01 ^{***}		6.25 ^{***}	
													6.61 ^{***}
R ² (Adj.R ²)		.07(.04)		.07(.03)		.15(.12)		.25(.22)		.10(.08)		.15(.13)	
												.19(.16)	
ΔR ²				.00		.08		.10				.05	
												.04	

주. 어머니 취업여부는 취업이 0, 비취업이 1로 코딩되었음.

* $p < .05$, ** $p < .01$, *** $p < .001$.

25%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유아의 의도적 통제, 부부갈등, 부모역할지능이 여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I단계에서 어머니의 교육수준($\beta = -.33, p < .01$)은 여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모델 I의 설명력은 10%였다. II단계에서 추가로 투입한 유아의 의도적 통제($\beta = -.23, p < .01$)는 어머니의 교육수준($\beta = -.31, p < .01$)과 함께 여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모델 II의 설명력은 15%로 나타났다. III단계에서 부부갈등($\beta = .22, p < .01$)은 여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모델 III의 설명력은 19%였다. IV단계에서 추가로 투입된 부모역할지능($\beta = -.21, p < .05$)은 여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모델 IV의 설명력은 23%였다. 요약하면, 남자는 부부갈등이 높고, 부모역할지능이 낮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나고, 여자는 어머니의 교육수준, 유아의 의도적 통제, 부모역할지능이 낮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사회인구학적 변인, 유아의 의도적 통제, 부부갈등, 부모역할지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문제를 중심

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라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과 관련이 없다는 이찬숙(200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본인의 취업 원인으로 치부되는 것에 민감할 수 있는 취업모는 외현화 문제행동 허용의 범위가 더 엄격할 수 있고, 그에 비해 일상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제 행동에 대해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비취업모는 외현화 문제행동 허용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비취업모와 취업모의 외현화 문제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차이가 나타났다. 즉, 4년제 대졸 이상 어머니의 유아가 고졸 이하 어머니의 유아보다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이 적게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유아에게 문제행동이 적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권수진, 2007; 이찬숙, 2008). 또한 어머니의 학력이 양육태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나타난 선행연구들(류은옥, 2004; 박새밀, 2004)을 바탕으로 어머니의 높은 교육수준은 자녀의 정서 또는 행동의 결과의 이유를 생각함에 있어 폭넓은 지식 적용이 가능함으로써, 유아의 내재

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가정의 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은 적게 나타났다. 이는 거주 지역에 따라 경제적 환경수준이 낮은 지역에 사는 유아가 경제적 환경수준이 높은 지역의 유아보다 외현적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난 이찬숙(2008)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어린 시절부터 환경에 따라 유아의 적응 문제에 편차가 나타남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가정환경의 차이에서 나타난 유아의 문제행동을 줄이기 위해 부족한 가정환경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은 부부갈등, 부모역할지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난 결과는 유아의 부부갈등 지각수준에 따라 우울, 불안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김새롬, 2006; Holden & Ritchie, 1991)와 부부갈등이 아동의 공격성, 반사회성, 충동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김민정, 2001; 우진영, 1998; 이민식, 1999)들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막기 위해 부부갈등을 줄일 수 있는 부부간의 대화와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부모역할지능이 높을수록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이 적게 나타난 결과는 부모의 관리·감독을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이 적게 나타난다는 고정자(2003)의

연구결과와 부모의 비밀관적 양육행동은 다양한 형태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Rey & Plapp, 1990)와 일치하는 것이다. 즉, 부모는 일관성 있는 태도로 유아에게 좋은 모델링이 되어야 하고,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유아가 문제행동을 극복할 수 있는 정서조절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역할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강하게 인식시키고, 적절한 부모역할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정기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반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만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 변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유아의 의도적 통제가 높을수록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적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자기 통제를 잘하지 못하는 아동일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인다는 김린(200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를 통해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통제력이 낮은 유아는 충동적이고 과감한 행동을 표현하고, 부적절한 반응과 행동에 대해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쉽게 나타내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셋째, 남아와 여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남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역할지능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역할이 자녀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진 연구들(김애경, 2002; 박정희, 2002; 임희수, 2001; 황혜정, 1997; Rey & Plapp, 1990; Rubin & Mills, 1991)과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부모역할지능의 결과적 요소로서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문제행

동을 관련지어 보면, 부모의 양육태도 중 거부적 양육태도가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이찬숙(2008)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부모가 자녀의 정서와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되 적절한 부모역할로 양육할 때 유아의 외로움, 우울, 두려움, 위축,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대부분 남아의 문제행동은 공격성에 관한 연구들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남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부모역할지능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밝힌 것에 의의가 있다.

여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부모역할지능이 여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유아의 불안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권수진, 2007)와 자녀에게 무관심한 부모의 자녀에게서 내재화 문제행동이 나타났다는 연구결과(Rey & Plapp, 1990)들을 비추어 볼 때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부모역할지능이 타인과의 관계적 성향에 민감한 여아의 정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적절한 부모역할은 부모-자녀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동기를 낮추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아와 여아가 다르게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부모역할지능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설명되었으며, 여아의 경우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함께 부모역할지능이 중요한 변인으로 설명되었다.

남아와 여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서 나타난 차이점은 남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 모두 부모역할지능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역할지능의 결과적 요소로서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문제행동을 관련지어 볼 때,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이찬숙(2008)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부모가 자녀의 정서와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되 적절한 부모역할로 양육할 때 유아의 외로움, 두려움, 위축,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넷째, 남아와 여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남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부갈등과 부모역할지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갈등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더 통제적이고 덜 애정적이 되어 자녀의 공격성, 과잉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강차연(1999)의 연구와는 일치하는데 반해, 부부갈등이 남아의 외현화 및 관계적 공격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김민정(2001)의 연구결과와는 불일치한다. 따라서 부부갈등과 남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계에 대해 일관된 결론을 위해서 다양한 후속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여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여아의 외현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교육수준,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부모역할지능으로 나타났

다. 이는 어머니의 학력이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행동 중 과잉행동 하위변인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최아라(2008)의 연구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라 여아의 퇴행과 강박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박영미(1996)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유아기의 통제 결여 기질이 이후의 내재화 문제행동보다 외현화 문제행동과 강한 관련을 갖게 된다고 보고한 Caspi 외(1995)의 연구를 통해 본 연구결과가 지지되며, 여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의도적 통제는 유아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거부적으로 지각할수록 자기조절능력은 낮게 나타났다는 오아라(2010)의 연구와도 유사한 맥락이다. 따라서 여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줄이기 위해 유아에게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경험을 빈번하게 제공하고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하기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어머니가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할수록 아동은 감정발산이나 공격적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임희수(2001)의 연구결과를 볼 때 어머니를 모델링함으로써 타인을 이해하는 지식을 발달시킬 수 있는 유아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거부적으로 인지한다면 어머니에게 거부당함으로 인한 상실감과 함께 타인을 조망하는 경험 부족으로 자기조절 능력을 발달시킬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유아의 의도적 통제, 부부갈등, 부모역할지능은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계가 있으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과 부모역할

지능과 여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교육수준, 유아의 의도적 통제, 부모역할지능은 남아와 여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과 공통 변인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이해할 때 성별에 따른 차이를 이해하고, 어른의 기준에 맞추기보다는 유아의 욕구를 이해하고 눈높이에 맞춰 생각하며 독립적인 행동을 존중해 주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및 제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인천, 경기도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원중인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연구대상을 광범위하게 표집하여 일반화 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해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의도적 통제를 질문지 방법으로 평가하였으나 관찰 등의 방법을 병행한다면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모역할지능 도구를 사용한 국내 선행연구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부모역할지능과 관련된 이론정립을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의 상대적 설명력을 조명하였으나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유아의 문제행동을 중재할 수 있으므로,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모형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데 더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유아의 의도적 통제가 타고난 기질적

측면으로 보여지지만,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변인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연구모형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의도적 통제가 다른 변인들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모형을 설정한다면 더 심도 있는 연구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남아와 여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유아의 문제행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한 다양한 후속연구가 계속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 강덕귀 (2002).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와 유아의 문제행동.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차연 (1999). 어머니의 애착유형과 결혼갈등, 자녀양육행동 및 아동행동문제와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고정자 (2003). 청소년의 개인변인과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변인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7), 121-143.
- 권수진 (2007). 어머니의 부모역할과 유아의 놀이성, 문제행동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중, 이찬숙, 조은주 (2008). 유아 개인, 가정환경, 지역변인에 따른 유아의 문제행동 연구.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2(2), 353-373.
- 김 린 (2006).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자기통제가 사회적 유능성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문정 (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 (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와 아동의 공격성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새롬 (2006). 부모의 부부갈등과 아동의 사회불안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애경 (2002).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 및 사회적 지원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외현적 문제와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6(3), 31-50.
- 김응자 (2004). 부모역할지능이 유아의 자아개념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니 (2011).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심리사회적 부적응 간의 관계: 부모화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정 (2001). 부모의 훈육방식과 아동기 문제 행동에서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2), 81-95.
- 문영경 (2010).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 의도적 통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류은옥 (2004).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 대인 문제해결 사고와의 관계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새밀 (2004).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결혼 만족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미 (1996).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정서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아동교육, 5(1), 49-64.
- 박정희 (2002). 부모의 가정교육방향 및 양육행동이 자녀의 심리·사회성숙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영자 (2009). 효율적인 부모역할훈련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윤진 (2012). 부모의 의도적 통제와 애정적 양육행동 및 유아의 의도적 통제, 친사회적 행동, 인지적 문제해결능력 간의 관계.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윤진, 임지영 (2012).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인지적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영향 요인: 부모와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애정적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3(3), 1-22.
- 변영인 (1995).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및 양육태도와 일탈행동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인동 (2001). 부부가 지각한 갈등과 자아분화수준이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경자, 김영아 (2008). CBCL 1.5-5 유아 행동평가척도-부모용 매뉴얼. (주)휴노컨설팅: 서울.
- 오아라 (2010). 모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공격성 및 자기조절능력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진영 (1998). 아동의 심리적 적응과 부모갈등, 부모-자녀 관계 사이의 관련성.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영미 (1989). 유아기질의 안정성과 계속성 및 문제행동이 예측에 관한 고찰. 부산여자대학교 논문집, 27, 313-334.
- 이민식 (1999).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지각된 부부갈등과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순형, 이옥경, 민미희 (2006). 아동의 성별, 부모의 이혼 및 아동의 부모양육행동 지각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81-191.
- 이찬숙 (2008).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개인, 가정환경 및 지역사회 변인 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찬숙, 김경운 (2008). 유아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개인변인과 부모양육태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2), 161-184.
- 임희수 (2001).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영란 (1993). 부부의 갈등과 자녀의 학업성취도와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 임정하, 정순화, 김경은, 박연정 (2008).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부모됨의 동기 및 부모역할인식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15(4), 67-91.
- 최아라 (2008).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애

- 착이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영희 (2003).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4(4), 29-40.
- 한영숙 (2010).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의도적 통제의 매개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미숙 (2004). 아동 부모교육·상담을 위한 부모역할 지능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혜정 (1997).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와 부모의 수용-거부적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교육심리연구*, 11(3), 331-350.
- Ahadi, S. A., Rothbart, M. K., & Ye, R. (1993). Child temperament in the U.S and China: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7(5), 359-378.
- Belsky, S. J., & Rovine, M. (1990). Patterns of marital chang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Pregnancy to three years postpartum.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2(1), 5-19.
- Berk, L. (2012). *Child development* (9th ed.). Allyn & Bacon.
- Block, J. H., Block, J., & Gjerde, P. F. (1986). The personality of children prior to divorce: A prospective study. *Child Development*, 57(4), 827-840.
- Calkins, S. D., & Fox, N. A. (2002). Self-regulatory processes in early personality development: A multilevel approach to the study of childhood social withdrawal and aggress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4(3), 477-498.
- Caspi, A., Henry, B., McGee, R., Moffitt, T. E., & Silva, P. A. (1995) Temperamental origins of child and adolescent behavior problems: From age three to age fifteen. *Child Development*, 66(1), 55-58.
- Eisenberg, N., & Spinard, T. (2004). Emotion-regulated regulation: Sharpening the definition. *Child Development*, 75(2), 334-339.
- Grych, J. H., & Fincham, F. D.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2), 267-290.
- Holden, G. W., & Ritchie, K. L. (1991) Linking extreme marital discord, child rearing, and child behavior problem: Evidence from battered women. *Child Development*, 62(2), 311-327.
- Kochanska, G., & Knnack, A. (2003). Effortful control as a personality characteristic of young children: Antecedent, correlate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Personality*, 71(6), 1087-1112.
- Murray, K. T., & Kochanska, G. (2002). Effortful control: Factor structure and relation to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5), 503-514.
- Rey, J. M., & Plapp, J. M. (1990). Quality of perceived parenting in oppositional and conduct disordere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9(3), 382-385.

- Richman, N., Steavenson, J., & Graham, P. J. (1982). *Preschool to school: A behavioral study*. London: Academy Press.
- Rothbart, M. K., & Bates, J. E. (1998). Temperament. In W. Damon (Series Ed.) & N. Heisenberg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5th ed., pp.105-176). New York: Wiley.
- Rothbart, M. K., & Bates, J. E. (2006). Temperament. In N. Eisenberg & W. Damon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6th ed., pp.99-166). New York: Wiley.
- Rubin, K. H., & Mills, R. S. (1991). Conceptualizing development pathways to internalizing disorders in childhood.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23(3), 300-317.
- Simonds, J., Kieras, J. E., Rueda, M. R., & Rothbart, M. K. (2007). Effortful control, executive attention and emotional regulation in 7-10-year-old children. *Cognitive Development*, 22, 474-488.
- Teglasi, H., Schussler, L., & Gustafson, E. (2010). *A comparison of CBQ parent and teacher forms factor structures*. Poster presented at the NASP 2010 Convention.

1 차원고접수 : 2014. 01. 14.

수정원고접수 : 2014. 02. 15.

최종게재결정 : 2014. 03. 04.

The Effect of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Parental Conflict, Parental Intelligence on Preschooler's Internalizing Problems and Externalizing Problems

Yim, Mi-Ji

Moon, Hyuk-Jun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conducted surveys of 299 children enrolled in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located in Seoul, Gyeonggi province, and Incheon, and their mothers in order to verify how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parental conflict and parental intelligence affect preschooler'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To analyze collected data, *t*-test, ANOVA, post hoc analysis (Scheffé),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children whose mothers were unemployed showed more externalizing problems than those of employed mothers. Additionally, it showed preschoolers whose mothers possessed education attainments equal to or lower than those of high school graduates tended to have more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than those of graduates of four-year-colleges. In addition, it revealed preschoolers of families whose monthly income levels were higher had les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than those of lower monthly family incomes. Second, it was found preschooler's internalizing problems had a close relation with parental conflict, and parental intelligence. Preschooler's externalizing problems, on the other hand, ha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parental conflict, and parental intelligence. Third,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 that affected preschooler'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was parental intelligence. Therefore, an appropriate parental role that is suitable for each situation and context is necessary, as is the pursuit of good parenting practices.

Keywords :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parental conflict, parental intelligence, preschooler's internalizing problems and externalizing problems